

화순 청년농업인, 농산물에 ‘브랜드’ 입혔다

군, 청년CEO 창농스쿨 성과발표회 개최 브랜드 개발·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 강화

전남광주통합시 화순군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입히며 생산을 넘어 상품 기획과 판매까지 직접 나서는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CEO 창농스쿨’ 성과발표회를 열고, 교육생들이 개발한 농산물 브랜드와 교육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청년농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히 출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서는 농산물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 기획부터 패키지 디자인, 상품화, 온라인 판

매 전략까지 농업경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생들은 자신이 직접 재배하는 복숭아와 딸기, 토마토 등을 소재로 농장과 농산물의 특징을 담은 브랜드를 직접 개발했다. 단순한 로고 제작에 머물지 않고 브랜드 이름과 콘셉트를 정하고 포장 디자인까지 완성해 실제 판매를 염두에 둔 시제품을 제작했다. 특히 교육생 간 상호평가와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브랜드를 보완했다.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병행했다. 교육생들은 스마트스토어 입점 방법과 온라인 홍보·판매 전략 등을 익히며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일 수 있는 판로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CEO 창농스쿨’ 성과발표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시 화순군청

이는 최근 농업이 단순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상품화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것인지가 농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군도 청년농업인의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 기반뿐 아니라 경영과 마케팅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화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에는 생산비 절감과 시설·장비 구축뿐 아니라 투자유치 역량 강화, 경영 컨설팅,

마케팅·판로 개척, 브랜드 고도화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돼 있다. 올해 전남도의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공모에서는 화순읍의 한 청년농가가 선정되는 등 청년농업인의 농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농지와 시설 등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장과 농산물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브랜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빛가람혁신도시서 한여름 밤 특별한 추억 만들어요”

27일 ‘하이볼&비어 페스티벌’ 먹거리·볼거리 마련 상권 활력

빛가람혁신도시의 여름밤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야간 축제가 다시 찾아온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빛가람전망대 일원에서 ‘2026 빛가람 하이볼&비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빛가람혁신도시상가변영회가 주관하고 상인회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도심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한여름 밤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 열린 ‘2025 빛가람 하이볼&비어 페스티벌’에 1만명의 구름 인파가 몰리며 시민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올해 축제는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600석 규모였던 야외 테이블존을 1000석 규모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탁 트인 야외공간에서 공연과 먹거리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

공간도 넓혔다. 이를 위해 빛가람전망대 입구 호수공원 도로 약 400m 구간은 행사 당일 오전 9시

부터 자정까지 차량 통제가 이뤄지며 해당 구간은 차량 대신 야외 테이블과 축제 콘텐츠가 어우러진 ‘차 없는 거리’로 운영

된다. 행사장에서는 하이볼 800잔과 맥주 800잔 시음 행사가 진행되며 먹거리 부스 10개소, 푸드트럭 8대, 체험존 15개소가 운영돼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오후 6시 30분 개막식에 앞서 나주시립 합창단의 식전 공연이 펼쳐지고 이후 퀸즈밴드 공연과 1·2차 DJ 공연, 개그우먼 안소미와 가수 서지오 등 초대 가수 무대가 이어지며 공연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는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야외 테이블과 행사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시원한 하이볼과 함께 빛가람전망대의 아름다운 야경, 공연과 먹거리를 즐기며 나주에서 특별한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화순, 13개 읍·면 가뭄 농업용수 긴급 공급 폭염 대응 살수차 탄력 투입…가용자원 총동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폭염 대응 살수차를 활용한 농업용수 긴급 공급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주민안전과가 주관하며, 13개 읍·면의 가뭄 상황과 농업용수 부족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뭄 방지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폭염 대응을 위해 확보한 살수차를 가뭄 상황에 맞춰 농업용수 공급에 전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장비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읍·면별 농업용수 부족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가뭄이 심하거나 물 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살수차를 우선 배치

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 등 계절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재난 대응 장비 상황을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는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사례로 평가된다. 군은 앞으로도 기상 상황과 농업용수 부족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뭄 방지에 대비해 살수차 등 가용 장비를 적기에 투입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지락 군수는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큰 만큼, 가용할 수 있는 행정자원을 적극 활용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13개 읍·면의 가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농업용수가 필요한 현장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영암 농부남생이 유통사업단, 소농·고령농 판로 확대

농산물 수매부터 직거래·주문배송까지 맞춤형 유통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부남생이 유통사업단이 자체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과 고령농의 농산물을 수매하고 직거래와 주문·배송을 지원하며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있다. 농부남생이 유통사업단은 영농 규모가 작거나 고령으로 직접 판매하기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수매부터 홍보·판매, 주문 접수와 배송까지 유통과 정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상현의 영

암맛집’ 직거래장터를 비롯해 왕인문화축제, 월출산국립공원, 계림아파트, SK뷰 아파트,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19차례 판매행사를 열어 1937만 99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름철에는 학산면 발호박, 금정면 하우스 수박, 영암읍 사인머스켓, 서호면 옥수수와 복숭아 등 제철 농산물을 수매해 주문·배송을 지원하고 있다. 기찬랜드와 영암청소년수련관, 목포평화광장에서도 3차례 직거래장터를 열어 724만원 어치를 판매하는 등 올해 현재



농부남생이 유통사업단 직거래 판매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청

까지 총 2661만99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판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 발굴에도 나

서고 있다. 유통사업단은 영암 11개 읍·면 마을회관 354개소 이상을 찾아 사업 참여 방법과 판매 지원 내용을 알리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농산물을 발굴하고 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계절별 출하 시기에 맞춰 판매처를 확보하고 직거래와 주문·배송을 지원해 소농과 고령농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농사를 잘 짓는 것만큼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소농과 고령농이 판로 걱정을 덜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부남생이의 역할을 넓히고,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농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정희 기자 hck1342@gwangnam.co.kr

장성,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 지원

주택·비주택 151동…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전남영광통합특별시 장성군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하반기 잔여 불량 신청을 11월까지 받는다. 대상은 장성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다. 주택, 창고, 축사, 물탱크 건축물 상·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추진된 올해 사업의 목표량은 325동으로, 현재까지 178동이 신청됐다. 추가 신청이 가능한 잔여 물량은 총 151동이며, 주택 143동과 비주택 8동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주민은 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범위로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철거·처리 비용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정하 업체가 시행한 공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낡으면 석면이 먼지처럼 날려 이웃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잔여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nb6699@gwangnam.co.kr

담양 어르신, 영화·다큐 직접 만든다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담양애청춘’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자신들의 삶과 마을 이야기를 영화로 담아낸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0회에 걸쳐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양애(愛) 청춘’을 운영한다. ‘배움이 즐겁고, 오늘이 빛나는 청춘!’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영상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삶과 마을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문화예술교육이다. 올해는 봉산문화심터와 대덕 운수대동 마을에서 각각 극영화와 미니다큐멘터리 제작에 도전한다. 봉산문화심터에서는 어르신들이 ‘봉산 탐정단’, ‘소원을 들어주는 우체통’ 등 마

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발굴하고 역할을 나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극영화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한다. 대덕 운수대동마을에서는 ‘내가 사랑한 대덕’을 주제로 마을의 풍경과 추억, 주민들의 삶을 기록한 미니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어르신들은 서로의 기억과 이야기를 나누고 촬영과 인터뷰에 참여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신들이 만든 작품의 영화 포스터도 제작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봉산과 대덕의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통합 영화상영회를 담양빛영화관에서 개최한다. 직접 만든 극영

화와 미니다큐멘터리, 작품 완성까지의 과정을 담은 메이킹필름을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 과정의 이야기와 소감도 나눌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담양애청춘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영상 매체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삶과 마을의 이야기를 직접 작품으로 남기는 과정”이라며 “배움과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전문 업체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